

水資源 일군 “建設 國寶” 江史 安京模



안경모는 1917년 황해도 벽성에서 태어났다. 1939년 일본 도쿠시마(德島) 고등공업학교(高等工業學校, 현 도쿠시마대학) 토목공학과(土木工學科)를 수석으로 졸업, 동년 조선총독부 철도국 기수(技手)로 봉직, 관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후 해방까지 6년 5개월간 철도기술의 베테랑으로 일하다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후에는 철도현장책임자를 거쳐 33세에 최연소 교통부시설국 건설과장이 되었다.

때마침 발발한 6·25 때는 기술역군으로 UN군과 같이 북한 땅의 평양까지 들어가 철도 전쟁 복구에 힘썼으며, 휴전 후에는 철도 전쟁 복구와 영암선, 영월선, 정선선, 문경선, 충북선 등 철도 건설에 큰 공을 세웠다.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미국·캐나다에 건너가 약 1년간 양국 철도 운영과 교통행정을 배우고 돌아와서 곧 보선과장직과 시설기감(施設技監)직을 맡아 한국철도의 근대화 및 혁신에 힘썼으며 큰 공헌을 했다. 오늘의 철도 선로(線路)의 개량은 그때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4·19 직후 1960년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자 국무총리 직속인 국토건설본부(國土建設本部) 기술부차장을 겸직하면서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한 민주당 정권에서 빈사상태에 있던 경제부흥을 위하여 국토건설부문에서의 계획과 기술부문에서 탁월한 수완을 발휘한 것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5·16 정부가 수립되자 교통부 겸직을 떠나 건설부(전 경제기획원) 국토건설국장(國土建設局長)에 임명되어 민주당 정권 때부터 집행해 내려온 정부 최



안희복

(주)이산 부사장

대사업인 국토건설사업을 마무리지었다. 그 후 국토건설국이 국토건설청으로 승격·개편되자 1961년 7월에 계획국장을 거쳐 동년 10월에 차장(次長)으로 승진되어 군사정부의 경제재건 정책에 발맞추어 국토종합건설계획을 마련, 울산(蔚山)공업도시를 위시하여 삼진강(蟾津江)댐, 춘천(春川)댐 등의 수자원개발사업 등을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사업으로 책정,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1962년 6월에는 국토건설청이 건설부(建設部)로 승격됨에 따라 내각수반 직속의 울산(蔚山)개발계획 본부장으로 전임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대단위 울산공업도시 건설을 지휘했다.

1963년 3월에는 제2대 건설부차관(建設部次官)에 임명되어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질 때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유임하면서 우리나라 제1차 5개년계획의 도로, 도시, 항만, 하천, 댐, 주택 등 국토건설의 토대를 닦아놓았다.

이때 울산공업도시건설, 태백산지구 산업도로건설, 수자원 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다. 특히 영세민 취업을 늘렸으며 공업화 정책의 토대를 구축했다.

1964년에 교통부장관(交通部長官)으로 전임되어 1967년 10월까지 3년 3개월의 재임기간 중 철도수송 능력의 증강, 산업철도 및 경전선, 경북선, 경인선 등 철도시설을 확장하여 수송력을 증강시켰으며, 각종 자동차 운송업의 기업화(企業化) 및 제도화(制度化)를 이룩하여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육상교통차량의 생산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이룩했다. 대한통운을 농림부(農林部)로부터 이관받아 소운송업(小運送業)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해운에 있어서는 외항선박(外航船舶)을 도입하여 구미(歐美) 등지에 취항시켰으며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韓日國交 正常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선박량(船腹量)을 늘렸으며, 화물선

건조로 해운의 자국화(自國化) 능력을 증대시켰다.

항공행정에 있어서는 민간항공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케 하고, 일본 노선 증설과 대형여객기 도입도 성취시켰다. 국제관광사업에 있어서는 1965년에 태평양 및 아시아관광협회(PATA)회의를 유치하여 한국에서 최초, 최대의 1,500명의 외국인 참석자가 한국을 다녀감으로써 우리나라 매머드 국제회의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1967년 12월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韓國水資源開發公社) 사장이 되었을 때 국가기간고속도로계획조사단장(國家基幹高速道路計劃調查團長)을 겸임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노선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에 비로소 첫 고속도로가 이룩되어 일일생활권(一日生活圈) 시대를 구현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석유공업(石油王業)과 기계공업(機械工業)에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게 했다.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동양 최대의 소양강(昭陽江)다목적댐, 안동(安東)다목적댐을 건설하였고 4대강유역조사 사업을 주도하여 홍수조절과 한해방지, 용수공급, 수력발전(水力發電), 내수자원(內水資源) 개발에 큰 공을 세웠다.

1974년 2월에 산업기지개발공사(産業基地開發公社)를 설립하여 수자원개발공사를 이에 흡수시켜, 계속 사장직을 맡아 15년이라는 한국 최장수 공기업 사장을 지냈다. 9개년간의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대청(大淸)다목적댐, 충주(忠州)다목적댐의 건설 및 운영에 힘썼으며, 1973년부터의 중화학공업 시대를 개막하는 데 선두주자가 되어 구미(龜尾)전자공업기지, 창원(昌原)기계공업기지, 여천(麗川)석유화학공업기지, 온산(溫山) 비철금속공업기지 등을 건설하여 우리나라를 신흥공업국가군(NICS)으로 부상시켜 1970년대의 제1차 도약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반월신도시(半月新都市

), 이리(裡里)수출공단, 대덕(大德)연구학원 도시 등을 건설했으며 광역상수도의 운영을 담당하여 확고부동한 공기업을 만들어 놓았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건설기술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 국내 토목기술자들의 총본산인 대한토목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13년간 상임이사, 5년의 부회장을 거쳐 1971~1972년 회장으로 학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였으며, 1967년 한국수자원학회 창립을 주도하여 1969~1977년까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나라 수자원이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71년 한국대담회를 창립하여 1972년에 한국을 국제대담회(ICOLD)의 회원국으로 가입시켰고 향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댐 기술을 세계무대에 확고부동한 위치까지 올려놓았다.

그 밖에도 국제 각종 건설기술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건설 기술을 대변하는 역을 해왔다. 국제회의 참석차 또는 업무 차 방문한 나라만 해도 미국(USA), 캐나다(Canada), 태국(Thailand), 대만(Taiwan), 홍콩(Hongkong), 싱가포르(Singapore), 일본(Japan), 인도(India), 말레이시아(Malaysia), 인도네시아(Indonesia), 호주(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 이탈리아(Italy), 스페인(Spain), 프랑스(France), 네덜란드(Netherlands), 룩셈부르크(Luxemburg), 독

일(Germany), 스위스(Switzerland), 오스트리아(Austria), 그리스(Greece), 영국(Britain), 멕시코(Mexico), 브라질(Brazil), 파라과이(Paraguay) 및 중국(China) 등 26개국에 달한다.

이외에 국내외 학술계에서도 지도적인 많은 활동을 했다. 미국 철도기술협회 회원,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국수문(水文)학회 회장, 한국대담회 회장,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한국엔지니어링 클럽 회장, 대한원격탐사(大韓遠隔探査)학회 회장, 미국 콘크리트학회 펠로우(Fellow) 등 많은 국내외 학술단체장을 맡아 활약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소성훈장, 보국훈장 천수장, 청조근정(靑條勤政)훈장, 금탑산업(金塔産業)훈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였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수여하는 동우상도 수상하였다. 1981년 2월에는 충남대학교로부터 명예공학박사(名譽工學博士) 학위를 수여받았다.

1985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전기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서 발간하는 '국제인물사전(International Register of Profiles)'에 등재, 소개되고 있다.

안경모는 그의 비문처럼 생명의 물길을 열고, 국토의 대동맥을 연결하여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신 분이로서 근검과 청렴을 평생 실천하시어 만인의 본이 되신 분으로 과학기술자들의 귀감으로 존경되어 왔다.

| 경력 | |
|------------|-----------------------------------|
| 1917년 | 황해도(黃海道) 벽성(碧城) 출생 |
| 1939년 | 일본 도쿠시마(德島) 고등공업학교(현 도쿠시마대) 수석 졸업 |
| 1939년 | 철도국 공무원 |
| 1953~1962년 | 미국 철도기술협회(AREA) 정회원 |
| 1959~1960년 | 국방대학원 수료 |
| 1961년 | 건설부 국토건설국장, 국토건설청 계획국장, 울산개발계획본부장 |
| 1963~1964년 | 건설부차관 |
| 1964~1967년 | 교통부장관 |
| 1964~1975년 |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 |
| 1967년 | 국가기간고속도로계획 조사단장 |
| 1968년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장 |
| 1968년 | 국가기간고속도로계획 조사단장 |
| 1969~1977년 | 한국수문학회 회장 |
| 1971~1973년 | 대한토목학회 회장 |
| 1973~1980년 |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상임위원 |
| 1974~1983년 |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 |
| 1981년 |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 |
| 1981년 | 충남대 명예공학박사 |
| 1981년 | 미국 콘크리트학회 Fellow 수여 |
| 1983~1986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
| 1984~1989년 | 대한원격탐사협회 회장 |
| 1986년 | 한양로타리클럽 회장 |
| 1986~1991년 | 교우회 회장 |
| 1995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
| 2010년 | 서울에서 별세 |

| 저술 | |
|-------|-----------------------------------|
| 1953년 | 『미국 및 캐나다 철도기술의 현황』 |
| 1960년 | 『한국 국토종합개발의 구상』, 국방대학원 졸업논문 |
| 1982년 |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다목적댐 건설』, 산업기지개발공사 발간 |
| 1985년 | 『건설기술개발전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간 |
| 1985년 | 『해외건설의 시련과 기술개발전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간 |
| 1993년 | 『연구원 설립을 돌아보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간 |
| 2002년 | 『지도를 바꾸고 역사를 만들며』, 한국수자원공사 발간 |

| 서훈 및 수상 | |
|---------|-----------------|
| 1960년 | 녹조소성훈장 |
| 1963년 | 보국훈장 천수장 |
| 1969년 | 청조근정훈장 |
| 1974년 | 대한토목학회 공로상 |
| 1975년 | 금탑산업훈장 |
| 1983년 | 대통령 표창 |
| 2002년 | 제1회 동우상(대한토목학회) |